CONTENTS

대청호 소식
2020 1+2 vol.121

2 이사장 신년사

4 대청호 가족들의 신년인사

8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66 ———— 길윤현 금산네트워크 대표

12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13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 1리

16 대청호 직유입 하천과 소유역운동 1

20 정책 & 이슈

24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활동보고

26 서화천·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활동보고

28 활동보고

30 네트워크 활동보고

35 대청호 뉴스&뉴스

37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발행일 2020. 2. 4.
발행인 오덕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320-7151

대청호로 직유입하는 회인천 유역에 있는 보은군 회인면 송평1리의 도랑. 송평1리의 마을길과 도랑, 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이 참 정겹다. 2019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함께 도랑 정리, 화단조성 등을 하고 나서 마을과 도랑이 훨씬 예뻐졌다.

참여와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새해가 되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7대 이사장 **오덕성**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뒤로 하고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경자년은 '흰 쥐'의 해라고 합니다. 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경자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청호유역의 물 환경이 한결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대청호는 40년째 대전 · 충청권 400만여 명의 생명수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물의 소중함과 자연생태의 아름다움을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청호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야말로 대청호를 활용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물은 세상만물의 근원이자 시작입니다. 하지만 지구 곳곳의 기상이변 등으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물 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운동본부는 대청호 보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버넌스의 개념이 낯선 시기에 많은 시도와 실패를 겪으며 지내온 지난 18년이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조류대발생과 물분쟁, 상·하류 주민갈등, 수질악화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주민들과 기관, 전문가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을들은 어느새 운동본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대청호보전운동의 주인공은 마을주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변화발전을 추구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기 위해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소중히 담았고, 거버넌스 연대체인만큼 민관협력의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진심을 담은 분주한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해 우리 운동본부는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을 중심으로 소유역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화천과 회인천유역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고 주민들과 다양한 실천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네트워크의 경우 소유역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120여명의 하천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는 대청호유역하천센터에서도 주기적인 하천감시조사활동, 주민실천활동을 성과적으로 펼쳤습니다. 각 지역별 네트워크에서도 지역의 단체 및 마을 주민들과 헌신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사랑 실천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연대체로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2019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사업을 더욱 견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청호 가족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맑은 대청호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대청호 가족 여러분이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대청호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호활동이 잘 추진되도록 대청호 가족들은 물론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물을 소중히 여기고 물 사랑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청호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상호 교류와 결속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 상하류 주민들이 화합하는 곳, 행정과 민간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곳, 이론과 실천이 조화로운 곳, 비판과 주장을 포용하는 곳,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배우는 곳으로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역할에서 희망을 찾아봅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담은 2020년 새 날이 밝았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함께 손을 맞잡으면서 올 한 해도 감동의 해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만사형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년 신년인사

19살의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크워크 대표
염우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02년에 창립하였다. 거버넌스란 개념은 등장하였으나 제대로 시도된 사례를 찾기 어렵던 때다. 협치나 협력의 의미 보다는 대립과 전선이 익숙했던 때,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을 선도하는 곳이고 환경단체는 댐 반대를 주도하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분명했던 때다. 그러던 중 한국수자원공사는 처음으로 환경단체에 수질 개선을 위한 실천협력을 제안했고, 환경단체들은 6개월 이상의 신중한 판단을 거쳐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물 거버넌스 체계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다.

올해 19년차,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물 거버넌스 기구가 아닐까? 돌이켜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청호 상하류 지역에 8개의 지역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수십개의 친환경 마을들을 양산하였다. 상류에서는 물환경 감시활동, 하류에서는 물절약 운동, 상하류 간에는 활발한 도농교류활동이 펼쳐졌다. 그러는 동안 국가 차원에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이적하였다. 내년이면 스무살,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제 성장기를 마치고 사회 첫발을 앞둔 청년의 나이가 되었다. 조직의 나이를 사람의 나이와 같이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에 들어선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미래는 모호하고 미션은 쳐져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년의 끝자락에 있는 서 있듯이...

사람은 고쳐쓸 수 없다 하지만 조직은 혁신과 계승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 발전할 수 있다. 다행히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미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고민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대청호 상류 직유입 하천을 대상으로 시도되고 있는 소유역협의회 구축은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하천유역센터, 상류마을들의 역할 제고 등 더욱 적극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역네트워크와 도시지역의 역할을 과도하게 위축시켜서도 안된다. 청주네트워크는 지난해 상류마을 주민들의 역할을 증진하는데 집중하였다. 문의권역 소유역협의회를 구축하였으며, 별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주민참여 하천관리활동을 전개하였다. 올해에는 도시지역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 청주네트워크의 노력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영동네트워크 대표
배임식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각자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올 한해도 힘차게 달려 갈 것입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각 지역네트워크가 올 한해는 좀 더 발전된 물 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영동네트워크는 올 한해는 조직적으로 소유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저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물환경교육을 통한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소유역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전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의 물 환경을 위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주네트워크 대표
최왕진

안녕하세요.

무주네트워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왕진입니다. 이렇게 대청호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2019년이 저물어 가고, 2020년이 되어, 요번달도 벌써 1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빠르다 매번, 몸소 느꼈지만, 일년이 빠르게 지나 어느덧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일 년을 돌아보니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올해는 모든 분들이 소망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며 2020년 경자년 행복한 한해 되시기 기원하며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전네트워크 대표
김종원

2019년 한해도 대청호보전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0년 경자년 한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말에 '한솥밥을 먹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솥에서 푼 밥을 같이 나누어 먹으니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속한 모든 참가단체와 기관, 회원마을 등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을 '한 물 먹는 사람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우리는 모두 금강 줄기의 맑은 물을 얻어 쓰기도 하고 대청호에서 모아 두었다가 함께 나누어 먹으니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대청호'라는 물로 맺어진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올 한해도 변함없이 같은 물을 먹는 사람들이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을 풀어가며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원합니다. 대전네트워크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와 이웃을 위해 열심히 실천합시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한경수 대표

경자년 새해를 맞아, 각 지역네트워크를 이끌고 계신 대표님과 단체 회원여러분, 120여명의 각 지역 하천감시단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에도 나와 이웃을 위해 우리 지역의 하천을 잘 살펴보고 깨끗이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새해에는 대청호 모든 구성원이 즐겁고 마음이 평화롭게 활동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욕심을 비우고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이타심을 갖고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 움직이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올 한해도 아름다운 산천에서 신나게 놀며 실천해 봅시다.

같은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장

박광수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큼 우리 삶에 따뜻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대청호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구축을 위해 함께 애쓰고 계신 금산, 대전, 무주, 보은, 영동, 옥천, 천안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있기에 청주네트워크도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청주네트워크는 지난해에 구성한 문의권역소유역협의회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중심의 하천관리와 물환경개선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소속단체와 유역마을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과 도랑살리기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각 지역네트워크에서도 2020년 새로운 시작, 힘찬 발걸음을 응원하며 늘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옥천네트워크 팀장

오희진

쥐띠의 해 2020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옥천네트워크 활동가로 일한 지가 꽤 오래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활동가로 일을 하는 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지요.

오래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지역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2020년 흰쥐의 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파이팅 해야쥐요!

무주네트워트 팀장

전선화

안녕하세요. 무주네트워크에서 올해 7년차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전선화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가 또렷이 생각이 나는데 벌써 7년이라니..! 지나가는 세월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릅니다.

“무심히 흐르는 세월을 두고 어떤 이는 빠르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느리다고 말합니다. 세월의 흐름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누구나 서로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또한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세월이 마냥 빠르고 아까울 뿐입니다.

2019년 작년, 이맘때쯤 대청호 소식지에 실린 저의 새해 인사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저는 다를 게 없더군요^^ 작년과 올해 역시도 계획했던 다짐들을 저는 한 달도 못 지키고 말았네요. 새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은, 무언가 계획을 세운 새로운 다짐이 있고,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날이 지날수록 다짐했던 계획들도 시간 속에 묻혀 버리고 있네요.

올해도 벌써 1월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러더군요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며, 그 어떤 다짐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점검 하시고, 저 역시도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생각 없이, 헛되이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들이 세운 계획이나 목표가 헛되이 되기 않도록 모든 일들이 슬슬 잘 풀리는 해가 되길 간절히 빌어보며,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대전네트워크 팀장

유지현

2019년 대전네트워크 사무국을 맡아 활동하면서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맑은 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대청호 상류의 회원마을주민들, 하천감시단 등 많은 분들 만나 뵈었습니다. 항상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 잊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네트워크 참가단체, 회원마을과 서로 협력, 교류하면서 소통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힘차게 대청호보전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보은네트워크 팀장

이화진

새해의 첫 다짐은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 2015년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를 읽는 중이다. 그 책속엔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얼마 전 교통사고의 경험과 후유증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다 생각했는데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 것이었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다는 걸~

2020년 새해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꿈꾸며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과 단합된 모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팀장 역량강화에 노력해야겠다.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 2020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금산네트워크 팀장

김청자

2020년 대망의 새해를 맞으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과학도 문명도 빠르게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도 초 광속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물과 사람은 진실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이로 공존하며 서로가 있으므로 좋은 사이니까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동행함도 순리에 맞게 차원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에 금산네트워크는 추풍천 중심의 정화사업을 새롭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꼭 하면 좋을 것은 잘하고 다음에는 그 터전위에 더 잘 하여 날마다 더 좋은 날이 되기를 희망하며 파이팅 해봅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화합으로 환경보호의 소중한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길윤현 금산네트워크 대표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사람이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금산군에서 대청호 보전운동을 이끌고 계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 길윤현 대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월 초 천내습지 인근에서 길윤현 대표를 만났다.

그동안의 삶 이야기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윤현 대표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물으니, 야은 길재 선생의 19대 후손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시를 읽으셨다. 금산읍 중도리에서 태어나 금산 토박이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어린 시절에는 금산 인구가 13만 명까지 달했다고 한다. 금산 장이 꽤 유명하여 무주, 장수, 대전 등 인근에서 금산으로 인삼, 약초, 소 등을 사러 왔고, 떡 방앗간을 했던 길윤현 대표의 집에도 장날만 되면 줄을 길게 늘어설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 지금은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고령화되고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밤이면 한적한 고향 금산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길윤현 대표는 3살 때 소아마비로 인해 장애가 왔고, 청소년기에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절룩거리던 걸음걸이로 인해 좌절도 하고 너무 슬퍼서 방황하기도 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독학으로 취득하여 타지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기도 하였다. 이후 다시 금산으로 와서 카드체크기 사업을 지금까지 24년간 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신문 부장으로 주재기자 활동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심회 및 금산네트워크 대표를 맡다.

늘 웃음을 머금고 사람들을 대하는 길윤현 대표는 2015년 초에 사)정심회 회장으로 선출되게 된다.

사)정심회는 장애인의 인권, 복지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1985년에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자조모임으로 창립되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미약해 지역의 뜻있는 장애인들이 모여 서로 도우며 스스로 자립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회원 20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5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처음엔 회원들이 파지나 공병을 팔아 기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회원들의 뜻이 알려지며 차량지원 등 지역의 손길이 이어졌고 자립이 목표이다 보니 별도의 후원금 없이 기금을 스스로 마련했다. 한푼 두푼 모아진 기금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금껏 금산의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길윤현 대표는 어떻게 하다가 정심회 회장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자판기 커피 유통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심회에 회원들이 편히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무료로 커피와 자판기를 제공하였는데 어쩌다 보니 연이 되어...”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빠서 정심회 회원으로 가입만 하고 활동은 못하다가 커피 후원을 계기로 가까워졌고, 때 마침 정심회 회장을 선출할 시기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여러 회원들이 단체의 발전을 위해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자는 의견을 냈고 낭중지추라고 회원들의 눈에는 길윤현 대표가 적임자로 보인 것이다.

정심회가 여러 모로 더욱 활발해진 것 같다는 필자의 말에 길윤현 대표는 “제가 회장을 하면서 얻어갈 것은 명예와 보람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회원들을 위해 곳간을 연다는 마음으로 활동해 왔다”고 하며 정심회가 회원들 간 단합력도 좋아지고 다양한 사업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는 정심회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게 되었고 정심회 회장으로서 금산네트워크 대표로 선출되어 금산에서의 대청호 보전활동을 이끌고 있다.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

길윤현 대표는 금산네트워크 대표로 선출되어 3년간 활동하면서 환경보호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한다.

금산네트워크는 연 1천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유치원 환경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 원아들과 물환경교육을 하고, 함지박 논에서 모내기부터 벼베기와 타작까지 하면서 재미있게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6회 유치원 환경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생태 체험교육을 8회 추진하였다. 학생들과 습지식물에 대한 교육, 외래식물인 가시박 개체 조사와 제거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또한 친환경 비누만들기 등 마을주민 환경교육을 10개 마을에서 실시하였고, 천내습지, 원골 및 수통리 금강변, 황풍리 봉황천 등에서 하천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강변에 넓게 퍼져 문제가 되고 인는 외래식물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도 매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도 천내습지 등 금강 변에서 가시박 제거 활동을 21회나 실시하였다고 한다.

길윤현 대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리없이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뵙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환경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모두 화합하여 좋은 결실을 맺길…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길윤현 대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연인원 1천명이 넘게 참여하는 유치원 환경교육을 예로 들면서 아이들과 모를 심고 벼베기까지 하는 1년의 과정을 갖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다고 한다. 앞으로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또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전체적으로는 본부 사무처에서 좋은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각 지역네트워크가 서로 화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더 큰 성과를 내고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대한 희망사항도 덧붙였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길윤현 대표는 웃음을 머금으면서도 사뭇 진지하였다. 앞으로 금산네트워크가 참여단체와 함께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기대가 되었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63년 동안 우리 마을에서만 살았지요.”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 1리 홍순보 이장과 함께

대전에서 신탄진을 지나 보은 상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다. 한겨울이지만 햇살은 이미 봄을 안고 있었다. 목적지인 송평 1리에 도착하는 데는 회인 인터체인지를 나와 1분도 안 걸렸다. 송평 1리로 향하는 다리 하나를 건너자 마을 회관이 눈에 띄었다. 그 다리 아래로 긴 냇물이 흘렀다. 그 냇물은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과 함께 흘렀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송평 1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홍순보 이장(63)이다. 홍 이장이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마을 이야기를 담아 본다.

회인 인터체인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송평 1리는 조선 시대에는 황평리라 하였는데, ‘황토 들판’을 의미하는 황버리로 불리어 왔다. 국사봉과 노성산을 등지고 사방으로 눌곡리, 건천리, 죽암리, 신대리가 있다. 회인군 읍내면에 속하여 오다 1914년 일제 통치하에서 행정 구역 개편 때 자송리와 황평리의 ‘송’자 ‘평’자를 따서 송평리라 하고 회인면에 편입되었다.

상수도는 여덟 군데 명당이 있다는 팔매실에서 흘러오는 물을 이용하고 있다. 마을 특산물은 오랜 세월 명성 높은 ‘회인 마늘’로, 일명 유황 마늘의 주산지이다. 마을 앞에는 약 400년이 넘는 보호수 느티나무와 돌담이 있어 매년 정월 보름날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현재 송평 1리에는 다양한 성씨가 모여 50가구 88명이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다. 송평 1리 마을 사람들은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오후, 홍순보 이장을 마을회관에서 만났다. 우선 자기 소개를 부탁했다.

“자기 소개요? 하하! 모르겠어요. 그저 그냥 나는 내 주관대로 사는데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남한테 악하게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할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니까 뭔 말하기가 어렵네요. 허허허!”

첫 질문에 답변이 독특하셨다. 홍순보 이장은 1958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송평리의 터줏대감이다. 25세 때 회인 우체국에 들어가 3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2015년에 퇴직한 후 2016년부터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송평 1리 자랑을 부탁했다.

“우리 동네 송평 1리에는 50가구 88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부락은 현재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황 마늘의 주산지랍니다. 유황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옛날부터

청주나 대전에 회인 마늘이 없으면 장이 안 선다는 말이 있었지요. 우리 마을에서는 특색 있는 농산물로 유황 마늘을 정하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어요. 우리 마을 작목 반장이 실패를 몇 년 동안 거듭하다가 성공에 이르렀답니다."

유황 오리가 몸에 좋다고 하듯이 유황 마늘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중금속을 해독할 수 있고 항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마늘이 아주 단단하고 보관도 잘 된다. 특수 주문한 비료와 유황을 섞어서 마늘을 재배한다. 파종 시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이고 6월 12일 전후로 수확을 한다. 회인면 일대에서 생산하는데, 송평리에서만 80%를 재배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마늘 주산지로서 명성이 높다. 그밖에 송평 1리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 아주 맛난 옥수수도 자랑거리다. 대학찰옥수수도 나름 매력 있다지만, 송평 1리에서 재배하는 미흑찰옥수수는 판매에 지장이 없을 만큼 판로가 좋고 인기가 넘친다.

홍 이장의 마을 자랑이 이어졌다.

"다른 부락에 비해 산세가 좋고 경관도 좋아요. 당연히 물 좋고 공기도 좋구요. 마을 인심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지요. 소나무에 온갖 나무도 좋고 마을 주변에 하천도 좋아요. 교통은 말할 것도 없이 편하지요. 서로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삽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들어와 살기도 좋은 마을이랍니다."

송평 1리 마을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에 대청호 담수가 시작될 즈음 하필이면 회인면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엄청난 재난이었다. 집이 떠내려갔고, 동네 수호신이던 오래된 느티나무와 소나무도 쓰러졌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 30가구가 채 안 될 때도 있었다. 홍 이장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홍 이장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좋은 마을 만들기에 힘을 모았다. 2010년에 회인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교통이 좋아졌고, 송평 1리에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50가구로 늘었다. 마을에 다양한 분야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 행정적인 도움을 얻고 서로 협력하는 데도 유익하다. 송평 1리에는 범죄자나 전과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악하게 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보은군에서 유일하게 'LPG 집단 공급' 마을로 선정되어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살기 좋은 부락을 만들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였다.

홍 이장에게 LPG 집단 공급 마을 선정은 자랑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로 꼽힌다. 공공 사업 일환으로 서류를 넣었는데, 내용이 좋아 선정이 되어 무척 기뻤다. 이 LPG 집단 공급 사업은 1개 군에 한 마을 정도 선정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보은군에서 최초로 송평 1리에 들어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고 잘 따라줘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업 실행 후 동네 분들이 좋다고 해서 어깨가 으쓱해진다. 여름철에 주방시설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겨울철에 보일러 기름 걱정 안 하니까 좋다. 에너지 요금이 절감 되어 모두가 만족한다.

홍 이장은 마을 앞에 꽃길을 조성하고, 정자도 새로 짓고, 부락 공동체로서 단결력을 확인했다. 다른 부락보다 깨끗한 마을, 남이 부러워하는 동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왔다.

정월 보름 때는 마을 앞에 있는 탑에서 제사를 지내고 윷놀이도 하고 남녀노소 모두 모여 하루 즐겁게 논다. 7월 백중 때 보양 음식을 장만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함께 나누는 시간도 좋다.

이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마을 산에 산야초와 표고 버섯을 재배하여 마을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것이다. 동네 분들의 단결력이라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 색다른 농사를 지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싶은 것이다. 마을 앞 도로가 좁아서 차량 진입 등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홍 이장은 느티나무 근처에 마을 쉼터를 만들어 주민과 행락객들이 함께 쉬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홍 이장은 하천 살리기 사업,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대청호 보전운동본부와 송평 1리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인터뷰 후반에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하천의 추억과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송평 1리가 있어 무조건 행복하고, 송평 1리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리라는 다짐의 말씀이 느티나무 이상으로 든든하게 다가섰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옥천 안남천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한 소유역운동

대청호는 1980년 담수 이후로 지속적으로 녹조 등 수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과 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창립초기에는 대청호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정화활동 등 실천활동을 전개해 왔고, 중기에는 대청호에 근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대청호 생활공동체운동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청호유역하천센터와 하천감시단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금강 상류의 하천감시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최근에는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활동보다 강화된 활동이 요구되어 왔다. 이는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9개의 하천에서 주민참여형 수질관리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대청호에 직유입되고 있는 하천은 옥천군 서화천, 안남천, 안내천, 보은군 회인천, 가산천, 청주시 묘암천, 등동천, 품곡천(주민들은 노현천이라고 부름), 대전시 주원천 등 9개의 하천이다. 이 하천 유역에서 주민 정화활동, 환경교육, 가축분뇨 및 하수 관리 방안 마련, 민관협력을 위한 회의 체계 마련 등 '수질개선을 위한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물론 대청호 직유입 하천이 없는 지역에서는 금강본류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활동하면 될 것이다.

2016년부터 옥천 서화천 유역에서는 이러한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해 왔다. 2018년부터는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퇴비나눔센터도 발족하여 활동해왔다. 서화천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보은 회인천 유역에서도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마을주민들과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냈다.

앞으로 서화천, 회인천 뿐 아니라 다른 직유입 하천에서도 소유역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부터 대청호 직유입 하천과 소유역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싣고자 한다.

옥천의 안남천 개요

안남천은 지방하천으로 수계는 안남면의 총 7개의 행정리 중 도농리, 화학리, 연주리, 청정리, 도덕리 등 5개의 행정리가 유역에 속한다.

농암저수지를 수원으로 시작해서 연주리 독락정 부근에서 대청호로 직유입된다. 주거지와 축사가 밀집해 있고, 상류에서 중류까지 식생대가 있다. 이후 도덕리에서 시작된 지류하천이 유입한다. 중류 우안에는 면 소재지가 있고, 좌안에는 농경지가 있다. 하천연장은 3.6km, 유로연장은 7.5km, 유역면적은 15.6㎢이다.

안남천의 오염원 조사

2017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에 따르면 안남천 유역의 오염원별 총인(T-P) 배출부하량은 토

지계(53.1%), 축산계(43.9%), 생활계(2.9%) 순으로 조사되었고 우심지역(정도가 더 심한 지역)은 도농리로 나타났다 도농리의 경우에는 안남천 유역의 전체 총인 발생부하량 기준으로 73%를, 배출부하량 기준으로 5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은 점오염원(3%)보다는 비점오염원(97%)으로 유출되었고 도농리에서 안남천 전체 비점오염원의 절반가량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평균 수질은 비강우시 II등급으로 청정교(상류) 지점에서 총인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강우 시에도 하천 평균 수질은 II등급을 유지했고 청정교 지점에서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2018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의하면 안남천 유역에는 축사 43개소(소 약 600두, 가금 약 13,000두), 방치 축분 12개 지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남천 유역 전체 총인 배출부하량 중 축산계가 93.8%, 생활계는 5.7%, 토지계가 0.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축산계의 한우와 가금류가 안남천 상류에 밀집된 만큼 비강우시 강우시 모두 상류지역 청정교에서 가장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방치축분이 총인

부하량의 78%에 기여 하였고 우심지역인 상류 도농리와 상류 화학리의 방치축분량은 전체 방치축분량의 64%를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한 청정교는 마을배수로를 통해 생활계 오염원뿐만 아니라 도농리의 비점오염원(축산계)들이 유입되었고 안남도농마을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또한 유입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촌소류지 주위의 방치축분 분포와 기타 배수로를 통해 화학리의 비점오염원들이 유입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안남천 유역의 마을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하면 수질개선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작지만 큰 안남면의 지역공동체

안남면은 옥천군의 다른 면보다 인구수나 면적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작은 면이지만 20년 넘게 이어온 주민들의 활발한 공동체 활동으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안남' '작지만 큰 안남'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 안남'이라는 수식어로 불리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안남면 내에서 '국회'와 같은 위상을 지닌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주민자치기구를 운영하며 안남식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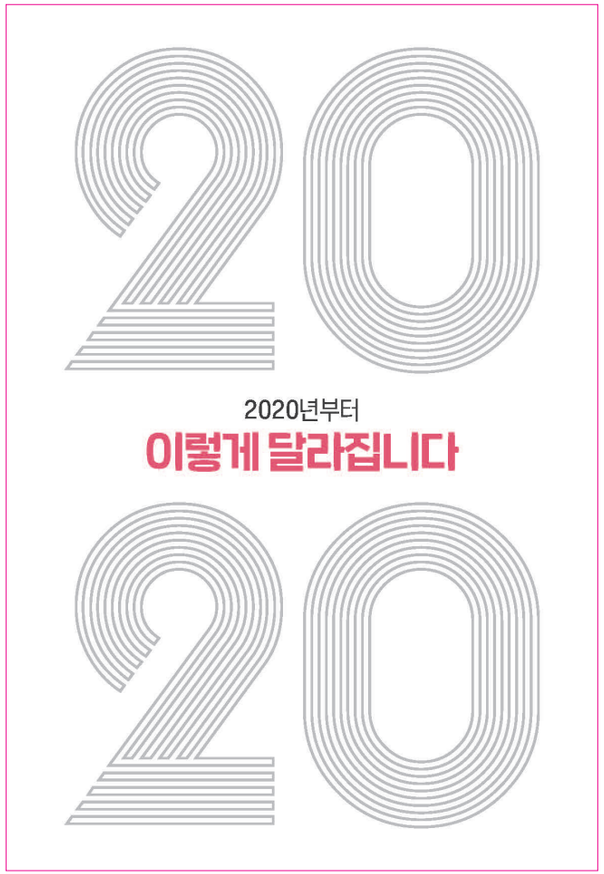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이전부터 이어온 안남의 주민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2006년 안남면으로 배분되는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안남면 농업 · 농촌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경제 · 문화 · 복지 등의 다방면에서 안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다.

'배바우'는 자연마을 이름이지만 오랜 시간 안남면 주민들이 안남의 중심지(면소재지)를 지칭할 때 사용해온 정겨운 이름이다. 이 '배바우'라는 지명을 활용하여 안남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행복 방앗간 배바우'를 개발했고,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배바우청정 정보화마을', '안남배바우공동체', '안남배바우도농교류센터', '배바우 마을신문' 등과 같이 안남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지역 내에서 두루두루 쓰이고 있다.

'배바우'의 예처럼 주민 전체가 협조하고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이 있는 안남면이기 때문에 안남천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고 가꾸는 '안남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 또한 훨씬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안남면과 이장단협의회 등과 협의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안남면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맑은 안남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

정리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2020년에 달라지는 환경 정책 및 제도 알아보기

2020년에는 환경분야에서 변화되는 정책 및 제도가 25개가 있다. 이중 물 환경과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또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2.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폐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며,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사업장 등은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적용이 유예된다.

3. 생태계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생태계서비스 국제 추세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조절·문화·지지서비스로 구분한다. 정부는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 및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를 도입해 습지,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노력한 개인, 기관 및 사찰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2020년 6월이다.

4.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돼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판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만 해당됐다.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돼 해당 제품 제조·유통 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1월 1일부터 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 도심 빌딩의 123만 8000kCal/hr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추가된다.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 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7.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의무제도가 없었다. 오는 10월 17일부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하는 등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가축분 퇴비를 부숙해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검사기준은 1500㎡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숙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9.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된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된다.

10.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 확대

올해부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새롭게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만 지원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창고와 같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새롭게 지원함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하천변 쓰레기 투기, 소각이 없어지려면

2019 대청호 상류 하천쓰레기 지도 발간

지난 한 해에도 금강과 대청호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다. 대청호 보전운동본부의 부설기관인 대청호유역하천센터는 지난해에도 대청호 상류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천쓰레기 지도 확대 구축

2019년에도 하천현장을 발로 뛰면서 대청호 상류 하천쓰레기 지도를 확대 구축하였다. 대청호 상류지역의 하천변에 지속적으로 투기, 소각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에 이어 하천 쓰레기지도를 제작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2018년에 조사하지 못했던 하천까지 확대하여 조사하였고 2018년과 비교하여 개선된 지점을 확인하여 넣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지점이 있다. 하기에 지난 2년간 하천쓰레기 조사를 하면서 느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어느 곳에 주로 쓰레기가 투기, 소각되는가?

하천쓰레기 조사를 하면서 확인된 것은 주로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인적이 드문 하천 및 도랑 주변에 많이 투기, 소각되고 있다. 심지어는 마을 내의 하천 주변에 투기, 소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하천이 농지와 인접한 구역에서도 또한 쓰레기 투기, 소각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지의 경우 특히 과수농지와 인접한 하천변에 쓰레기 투기, 소각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농사용 폐비닐 등 폐농자재를 수거하는 장소에 일반쓰레기도 함께 투기되고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로 정해진 곳에 분리수거 되지 않은 채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침대 등의 가구,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까지도 투기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행락객, 낚시객들이 자주 찾는 곳 또한 쓰레기 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왜 쓰레기가 투기, 소각되고 있는가?

일반적인 마을의 경우 쓰레기 수거 차량이 최소 주 1회 이상 마을에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수거주기가 2주 이상 되는 마을도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경우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하천변에 투기, 소각하여 쓰레기를 해결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되지 못한 문제도 크다. 분리수거를 해야 수거차량이 수거해 간다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거나 쓰레기 처리를 위해 하천변에 투기, 소각하고 있다. 하천변 농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또한 분리수거해야 하나 그대로 하천변에서 소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종량제봉투 사용이 생활화되지 못한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종량제봉투를 지원받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투기, 소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홍보 및 계도가 중요하다.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요원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쓰레기 수거주기가 긴 마을이나 면단위의 경우 최소 주1회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투기, 소각이 심각한 곳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0년에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더 활발한 활동으로 맑은 금강과 대청호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국장,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대청호 직유입 하천 유역에서 주민과 함께한 수질개선 운동 성과적으로 마무~리

2019 서화천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연구과제 최종보고회

민·관·학 공동노력 “마을환경개선 위한 실천력과 주민지원정책 중요”

대전충청권 450만여명의 생명수인 대청호가 좀 더 맑은 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졌다. 그중 서화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연구과제 역시 같은 맥락으로 2019년도 한해동안 대청호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직접 발로 뛰며 현장조사와 실천활동을 병행한 바 있다.

2019년 3월부터 8개월간 운영된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12월 9일 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한해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농업폐기물 적정관리 시범마을과 도랑살리기 시범마을에 참여했던 6개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군 군북면 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서화천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천활동이 많아질수록 환경오염원 저감대책이 가능하다는 명제가 성립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적극성을 지원해줄만한 구체적인 정책마련도 시급하다는 결론을 짓고, 2020년도 3차년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주최, 우리단체가 주관한 연구과제로, 연구와 실천활동을 병행한다. 2018년도 첫해 연구과제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마을주민들의 활동과 참여가 매우 중요함에 모두 동의하

면서 민관공동 실천활동에 주력했다면, 2019년도 2차 연구과제에서는 하천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조사와 원상복구 실천활동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마련이 강조된 바 있으며, 향후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해 정책제안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가기로 협의했다.

회인천유역 거버넌스 사업보고회

지난 2019년 11췰 27일 회인면 행정복지센터(회인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는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건희 사무처장의 발표로 사업보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민관협의회를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해 지역에 맞는 바람직한 수질오염 저감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대청호로 유입되는 회인천과 회인천으로 유입되는 도랑살리기를 회인천 유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시범사업으로 전개 하였습니다.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방치 가축분뇨 실태조사 및 비가림 설치와 안내판 설치, 도랑살리기 선진지견학, 도랑살리기 정화활동, 마을 환경교육, 비가림 분리수거함 설치 등 비점 오염원을 줄이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진되었고, 대청호 녹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회인천의 가축분뇨에 대해 비가림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줄여가는 성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나 환경현안에 대한 민관협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인천에서 마을단위 혹은 주민들이 직접 하천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의 되어야하고 가축분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비가림 설치 등의 단기적 처방을 넘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는 과제를 남기고 2019년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사업보고회는 마무리 되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회인천 수질이 더욱 개선되어 대청호보전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대청호 보전운동본부 활동보고

대청호유역하천센터 2019년 5차 운영위원회 개최

대청호유역하천센터 5차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영동군 과일나라 테마공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여명의 참석한 회의에서는 11월에 진행된 하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2019년 사업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0년 사업계획 초안을 논의하였다.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회의에서는 대표 호선의 건도 논의되었는데 하천센터 대표로 선출되어 2018년부터 활동해온 한경수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추천되었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2019년도 평가 및 2020년도 활동계획 수립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배병욱 대전대학교 교수)는 지난 12월17일 오후3시30분,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세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정책연구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활동을 평가하면서 “전문가그룹이 함께 모여 대청호 곳곳을 직접 다니며 현안모니터링하고 전문가의견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및 마을주민을 만날 수 있는 소통창구로 활용되는 현안모니터링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강조하면서 좋은 활동은 계속 이어나가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나누며 정책제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활동진행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2019년도 연구과제 ‘댐유역 생태계 서비스 재고 및 마을발전을 위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한일교류 협력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최충식 위원은 일본 도야마현에서 관광특구로 활성화되고 있는 구로베댐과 아리미네댐을 방문한 가운데 대청호 상류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과 운동본부와 교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내외 현실정상 일본과의 교류가 현실적이지 못함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본부의 거버넌스 활동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교류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2020년도 활동계획에 스톡홀름 물주간 시즌과 연동하여 국제적 물이슈에 대한 이해와 운동본부 국제협력기반마련을 위한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배병욱 정책연구위원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연구위원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활동으로 채워나가자”고 밝히면서 대청호 수환경개선을 위한 현장모니터링활동과 국내외적 협력방안을 구상하는 유의미한 활동에 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회준비위원회 1~3차 회의, 감사 진행 보고

2020년 1월 31일 14시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열리는 제 19차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3차례 총회준비위원회가 대청댐물문화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차 총회준비위원회는 2019년 12월 6일 금요일에 진행되었는데요.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일정 논의, 2019년도 사업평가 관련 역할분담, 임원 인선관련 논의, 대청호지킴이상 등 표창 상신 논의가 있었습니다.

2차 총회준비위원회는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사업평가서 확정, 사업방향 논의 그리고 임원 인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3차 총회준비위원회는 2020년 1월 17일 금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확정, 임원 인선 확정, 감사결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총회에 앞서 2019년도 사업 및 회계감사가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사무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는 2019년 사업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 되었습니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맑은 대청호를 위한 지역의 노력들

네트워크 1년 사업 요약 소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대청호보전운동본부 8개 네트워크에서는 각자 지역에서 대청호보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네트워트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보전을 위한 참여하는 수질개선실천운동”이라는 사업명으로 10개 단체와 4개마을이 함께 했습니다. 주요활동을 보면 대청호 주변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보내주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 “대청호 직거래장터” ,“대청호생물놀이터만들기”,“찾아가는 수질정화호나경교육”, 도농교류/농촌체험 등을 했습니다.

대청호농산물보따리를 통해 하류지역 소비자들에게 대청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로컬푸드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하고, 상류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했습니다. 대청호 직거래 장터에서는 대청호농산물 이용 시민들에게는 대청호의 중요성과 대청호 수질에 대한 지역현 황을 인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믿을 수 있는 로컬푸드 운동으로 대청호농산물 소비 확산하는 것에 기여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 놀이터 만들기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보전의 필요성을 논과 밭에서 사는 다양한 식물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생태 다양성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하였고 수질정화환경교육을 통해 대청호의 소중함과 수질정화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옥천네트워크는 “대청호 상류지역의 생태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7개 단체와 1개 기관 9개 마을에서 함께 2019년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활동으로 “대청호길 걷기”, “선진지 견학”, “생태마을 가꾸기”, “도농교류”, “대청호 어린이자연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옥천네트워크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언론사(옥천신문)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걷고 싶은길 10선을 발굴하여 지역의 자원(생태체험)으로 활용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지역을 견학·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공요인과 운영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마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구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농약병수거와 환경보전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마을 발전 모델 공유 및 파급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교내 초등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대청호 탐사단을 꾸려, 다양한 생태자원 조사 및 수생태계 보전의 필요성 홍보했습니다.

무주네트워크는 “청정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5개 단체 1개 기관 10개 마을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회원 마을가꾸기”, “우수사례 선진지견학”, “맑은 구량천 만들기”,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마을 가꾸기는 주민들과 함께 정화활동, 환경교육, 천연제품을 만들어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타지역 방문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정보를 획득하고 변화하는 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맑은 구량천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외래풀 제거활동, 환경교육, 하천정화활동을 통해 마을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와 회원단체 회원들과의 팀웍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영동네트워크는 “내가 먼저 지키는 깨끗한 마을하천!”이라는 사업명으로 4개 단체 1개 기관 9개 회원마을이 함께 활동 했습니다. 주요활동으로 “마을하천 가꾸기”, “선진지 견학”,“찾아가는 환경음악회”,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알리기”, “도농교류”가 있었습니다.

마을하천가꾸기는 회원마을 주민들과 함께 EM주방세제만들기 EM비누만들기를 하고 하천정화활동을 하여 마대자루 11,000L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견학을 통해 환경사랑운동을 실천하며 회원, 단체 친목도모를 기여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음악회를 통해 주민물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영동 난계축제 부스를 통해 대청호알리기 행사를 하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홍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을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회원 마을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를 통해 득증대에 대한 농촌현실에 도움을 주고 대학생이나 유관기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물.환경활동 홍보와 지역간의 활동가들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상하류가 함께 만드는 깨끗한 대청호”라는 사업명으로 4개 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활동으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주민교류 프로그램”, “대청호 알리기 활동” “하류주민 물 사랑 시민교육”, “하천 지킴이단” “물절약 실천단” “EM물사랑 아파트 만들기”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물절약 실천단이라는 가족 참여형 물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연령의 가구원이 실질적인 물절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청호 견학을 통해 상류지역을 직접 방문함으로서 대청호 유역 간 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EM물사랑 아파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생활 속 합성화학세제 사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입주민 교육 등의 주민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은네트워크에서는 “내고정 청정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3개 단체 1개 기관 7개 회원마을이 함께활동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생태마을 만들기”, “선진지견학” “벽화그리기”,“환경교육”, “도농교류”, “맑은하천만들기”를 했습니다.

생태마을 만들기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분들의 이해를 높이고 생태마을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다른 마을의 유요한 정보를 습드하고, 참석회원 간의 유대관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제품 만들기를 통해 실생화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대청호 수질보전에 기여 하였으며, 참여단체간 협력 증진으로 네트워크 활동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산네트워크는 7개 단체 1개 기관 10개 회원마을 함께 협의하여 활동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유치원환경교육”, “수생태체험교육”, “하천정화활동”, “가시박제거 및 정화활동”, “깨끗한 마을만들기” “도농교류”를 했습니다.

유치원환경교육은 지역의 죽당어린이집과, 푸른어린이집에서 각각 8회씩 총 16회를 진행하였고 물환경교육, 논만들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생태체험 교육은 금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습지식물의 종류와 작용, 가시박 개체조사 및 제거 작업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천정화활동과 가시박 제거 작업을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하천 수질 개선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주네트워크는 “마을과 주민중심의 대청호 수질개선활동”이라는 사업명으로 9개 단체 1개 기관 6개마을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소유역협의체 발족 및 운영”, “주민하천관리단 양성”, “도랑가꾸기행사 및 대청호 맑은물 한마당”, “생태문화탕방견학”이 있었습니다.

대청호 직유입 하천의 주민참여형 소유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단체·마을 간 협력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었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인 마을 하천 감시·정화활동을 통해 대청호 수질개선에 기여 하였고 하류지역 주민들이 대청호 맑은물 보전을 위한 상류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청호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청호 맑은물 한마당”을 통해 마을 하천 정화활동을 하면서 회원마을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으로 대청호 녹조 원격 탐사…식수원 관리 기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대청호 수역에서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이용해 녹조를 원격 탐사하는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녹조는 물의 흐름이 느리고 수온이 올라가는 환경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해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수질 오염과 물고기 폐사 등을 일으키지만 임계점을 넘어가면 남조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사후 조치가 어려워진다.

사람이 수질을 측정하는 기존 방식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데까지 이틀 이상 걸리는 데다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해야 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ETRI는 가시광선 영역과 근적외선 영역 파장대를 잘게 쪼개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초분광 카메라를 드론에 탑재, 대청호 수역을 원격 촬영했다.

육안으로는 녹색을 띠는 다른 생물과 남조류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하면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1㎖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 1천~1만개)에 진입하는 초기 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을 이용한 녹조 촬영은 있었지만 드론을 이용해 초분광 영상을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성이나 항공기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고해상도로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ETRI는 지난 6월부터 대청호 주요 지역 두 곳에서 수상 드론과 고정식 센서를 이용해 수질 영상 빅데이터를 구축해 왔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 방식을 이용해 녹조가 갑자기 불어나는 시점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권용환 ETRI 책임연구원은 “조류예측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까지 대청호에 녹조 실시간 모니터링 맵을 구축, 탐사에서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 11. 28 박주영 기자

대전 동구, 대청호 마라톤대회 홍보대사 ‘이봉주 선수 위촉’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 대회 인지도 상승 및 대청호 관광명소화 기대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6일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홍보대사로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를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인 이봉주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 대회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대청호 벚꽃길을 관광명소화 하고자 마련됐다.

이봉주 선수는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1998년2002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7년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 우승 등을 통해 국민 마라토너로 알려져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인 대청호 벚꽃길을 관광명소화 하는데 이봉주 선수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뉴스】 2019. 12. 26. 김남숙 기자

대전 동구 정책자문단 ‘대청호 연륙교 개설 사업’ 논의

대전 동구는 지난 2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대청호 마산동~사성동(붕어섬)을 잇는 연륙교 개설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청호 연륙교 개설 사업은 마산동과 사성동 간 연륙교를 개설해 대청댐 건설로 단절된 대청호수로와 오동선 주민들의 가교 역할은 물론 대청호를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책자문단은 이날 연륙교 개설 사업 외에도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꾸미는 대동천 개발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인호 구청장은 “구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인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책자문단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1】 2019. 12. 25. 김경훈 기자

대덕구, 대청호 바라보며 새해 첫 날 맞이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해 1일 대청댐 물문화관 앞 광장에서 '2020 경자년 대청호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5천여 명의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개회 축포를 터뜨리는 것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원 대북공연과 '행복대덕' 네 글자로 구성된 불꽃 자동점화 이벤트, 2020년 새해 기념 20대의 젊은 콘셉트로 진행되는 퓨전그룹 '트리니티'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대청호 해맞이가 새해 첫 행사인 만큼 대덕구의 2020년 사업방향 △ 주민행복 실현 △ 사회적경제 활성화 △ 기후위기 대응을 반영하여 지난 2019년 대청호 해맞이 행사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불꽃놀이와 소망 풍선 날리기를 올해부터는 전면 취소하여 지역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주민행복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온 많은 방문객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청호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며 여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과 함께 대덕구 대청호에서 2020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과 발전하는 정책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대청호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뉴스】 2020. 1. 1. 김남숙 기자

옥천군 얼지 않는 대청호 빙어어획량 급감

옥천지역 얼지 않는 대청호에 빙어어획량 급감으로 어민들이 시름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청호 어부들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하루에 100-150kg은 잡아야 하지만 지금은 그물을 들어내 봐야 1-2kg밖에 나오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옥천 안내면 인포리와 장계리 대청호주변은 얼음이라도 언곳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에 비해 1월 중순이면 한겨울이지만 올해는 강추위도 없었다. 옥천지역 수은주는 영상 6.4도까지 올라갔다.

지역어민 한 관계자는 "지난 주 대청호에 설치해 놓은 빙어전용그물을 들어 올렸지만 물고기는 많이 보이지 않았다. 빙어를 잡는 그물은 길이 5m가량의 원통모양 그물이다. 그물 끝부분에 빙어 30마리 가량이 걸려있었다. 무게로 치면 300g 정도에 못 미치는 양이다. 예년 같으면 그물 1개를 들어 올리면 30-50kg의 빙어가 올라 왔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온난화가 심해져서 겨울에도 호수가 얼지않고 냉수성 어종인 빙어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추워야 빙어가 잘 번식하는데 기후가 상승하면서 해마다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겨울빙어어획량이 예년의 10% 수준으로 줄어 어민소득도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중부권지역 최대빙어 낚시터로 알려진 옥천 동이면 안터마을 앞 대청호주변 결빙은 없는 실정이다. 이곳은 해마다 이맘때면 호수전체가 얼음판으로 변해 많은 행락객들을 끌어 모았다. 주말이면 인근 대전과 청주지역 뿐만아니라 남부지역에서도 많은 인파가 찾아오는 곳이었다.

이에 옥천 안터마을은 대청호가 얼면 '겨울문화축제'가 열리며 썰매타기, 빙어낚시와 체험으로 마을에 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발길이 뚝 끊겼다. 이 마을은 기후온난화변화에 따라 겨울철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옥천 동이면 안터마을이장은 "겨울문화축제로 지난 5-6년 전만 해도 안터마을 주변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았다"며 "남부지역에서는 대청호 만한 빙어낚시 명소가 없었는데 이제는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대청호수역 수온은 추동(대전) 8.6도, 문의(청주), 회남(보은) 8.9도다. 표층수온은 0도, 평균수온은 4도 수준이 돼야 대청호 결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일보】 2020. 1. 12. 육종천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기족' 소식

옥천군

옥천군, 대청댐 수몰 마을 기록 찾기 나서

옥천군은 20일 옥천향토문화연구소와 기록문화 확산 및 기록물 공동 활용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연구소는 대청댐 수몰 마을의 기록물을 수집해 정리한 후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연계 협력사업 발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기록물 수집·보존 활동도 협약에 포함됐다.

옥천군은 향후 민·관 기록관리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무주4-H연합회

무주4-H연합회·사랑의 열매봉사단, 이웃사랑 실천

무주군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무주군 4-H연합회 회원들이 올해 과제 실습포에서 재배한 쌀 100포대(1포대 5kg)를 기탁했다.

최주영 최장은 "그동안은 과제 실습포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기탁했었는데 올해는 직접 농사지은 쌀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과제실습포를 통해 협동심을 키우고 이웃들을 돕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어 4-H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사랑의 열매봉사단원들이 그동안 모은 저금통 10개를 포함해 총 264만 8040원을 무주군 측에 기탁했다.

임미화 대표는 "항상 지역과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 편이 늘 무겁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오늘 성금이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기탁된 쌀과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주군

무주군 부남면 대소마을회관 개소식

지난 12월 24일 부남면 대소마을회관에서는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개소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내빈들과 유상돈 이장 등 주민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테잎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복종 부남면 개발위원장은 "오늘을 계기로 주민들은 협동하며 대소마을을 후대에 귀감이 되는 마을로 일궈나갈 것"이라며 "마을회관이 완공되기까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셨던 주민여러분과 행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마을회관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쉼터, 지역발전을 싹 틔우는 공간이자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라며 "새 단장을 마친 마을회관을 기반으로 부남은 무주의 자랑, 대소마을은 부남의 중심으로 거듭 발전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소마을회관은 연면적 93.94㎡규모로 지난 10월 착공해 12월 완공됐으며 청년방과 부녀회방으로 구성돼 이용 편의를 높였다.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주민들은 "번듯하니 깔끔해진 마을회관을 보니 기분 좋다"라며 "마을사람들 공동 이용이 가장 많은 공간인 만큼 이곳에서 마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 대토론회서 LNG 발전소 중단 결정"… '혹 떼려다 붙인' 청주시

충북 청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시민 대토론회에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 중단이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되면서 시가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14일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시와 시의회,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18개 기관·단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됐고 60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50개 조로 나뉘어 개인별 의견 전달과 공유, 상호토론을 거쳐 과제를 선정했고 현장 투표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했다.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지만 10대 정책과제 중 LNG 발전소 중단이 3위에 선정되면서 시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시는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해 찬·반보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업체의 대응,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경청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발전소 반대 입장을 보인 지역시민단체들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제와 환경 문제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토론회 결과가 시의 입장이라는 오해까지 더해져 향후 기업 유치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결과가 예상됐지만 시가 여론 수렴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회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토론회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이 중 50명은 각 테이블에서 참석자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퍼실리데이터 역할을 맡았다.

청주시 한 공무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토론회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과제들은 특정 목적에 의해 조직적으로 선택된 것 같아 이를 전체 시민 의견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며 많은 분의 참석을 위해 인원을 나눴다"며 "중간점검 당시 행정 쪽에서도 공무원 등 250여명 정도가 조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사회 참석자가 많아 토론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리"라며 "토론회 관련 모든 사항은 시와 협의했고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의 토론회 진행 역시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켜라"… 주민투표 청구 운동본부 발대

2020년 7월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천안에서 추진 중인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주민투표 청구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주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투표 청구안이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직접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의 등은 지난해 12월 5일 천안시청 앞에서 '천안 일봉산 시민공원 선포 및 주민 투표 청구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 앞서 "일봉산은 주변 10만여 세대 주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온 공간이다. 시의 일방적인 민간공원특례사업 강행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공원을 지키고자 주민투표 청구 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발대식에는 윤일규 국회의원,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외에도 서울과 대전, 경남지역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1년 반 전에 이 운동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일관되게 사업에 반대해 왔다"며 "서명운동과 청원, 시장 및 시의장 면담 등 수많은 경로와 방식으로 공청회를 제안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에는 시의회가 주민투표 청구를 스스로 부결시키는 작태를 보였다.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이 보장하는 마지막 수단. 주민투표 청구를 우리 스스로 진행하려 한다. 천안시 유권자 1/20이 필요하다. 2만 5000명~2만 6000명이 청구에 참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0% 이상의 주민투표 참여와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서 궁극적으로 일봉산을 시민공원으로 선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이현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도 지지 발언을 통해 "그동안 부안과 영덕, 삼척에서 환경 문제 있을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사업자와 싸우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주민투표다. 부안 핵발전소 유치, 핵발전소 유치 찬반 투표에서 다 이겼다. 운동본부가 지금은 시작이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첫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충남은 서부권 발전소의 대기물질로 인해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천안은 미세먼지 농도도 가장 높은 곳이다. 그 어느 곳보다 도시 공원 필요한 지역"이라며 "후손들이 살아갈 좋은 환경 물려주고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봉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발대식 선언문 낭독과 청구인 서명 및 민원실 제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면적 40만 2614㎡의 29.9%인 12만 500㎡에 27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일봉공원은 최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주최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보존가치가 높지만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유산 10곳 중 하나로 뽑혔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무주 4-H본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사단법인 정심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